

1904~2024

**수원교회 축성120주년**

**감사성찬례**

**<견진성사>**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성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에페 2:22)

일 시 : 2024년 9월 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수원교회

집전·설교 : 이경호 베드로 주교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 초 대 의 글

수원교회 축성 120주년 기념행사와 성찬예배에 초대하며 환영합니다.

모든 교우님과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1904년 수원과 경기 남부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성공회 수원교회가 올해 축성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역사를 통해 수원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 보여 온 헌신과 노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무엇보다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복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기여해 오신 복지와 교육의 선구적이며 개척자로서의 발자취들인 진명구락부, 진명학교, 성피득보육원 등의 활동을 확인하면서,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회는 이번 축성 120주년을 돌아보고, 기념하면서

첫째, 수원교회 뿌리 신자 세 가정 초대

둘째, 1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수원교회 마당을 지켰던 회화나무를 활용한 가정기도를 이동식 제대 및 기념품 제작 및 서화전 준비

셋째, 교회 공동체를 진단하고, 지역의 소리를 경청하는 간담회

넷째, 세마대교회, 나눔의 집,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와 함께하는

주일 연합감사성찬예배, 야외음악회와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공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나무의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그 나무가 그동안 맺어 온 결실들과 열매들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은 은총이 교우님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 9. 8

수원교회 관할사제 김홍일 사제 드림

# 수원교회 축성 120주년 감사성찬례

집전 설교 : 이경호 베드로 주교

시 축 : 김영균 프란시스 사제

복음 파송 : 정일용 바울로 사제

1 독 서 : 임희봉 크리스핀 (수원나눔교회 신자회장)

2 독 서 : 안재금 베드로 (수원다시서기센터 센터장)

성체배령 / 보혈조력

1조 : 이경호 베드로 주교 / 황명준 라자로

2조 : 김홍일 암브로스 사제 / 이재복 베로니카

3조 : 김진세 애덕 사제 / 최호용 스테파노 (2층 브라이들홀)

4조 : 정일용 바울로 사제 / 황응식 바울로 (성가대)

안 내 : 수원교회 환대와 안내팀

광 고 : 김경수 세례요한 신자회장

봉 헌 : 에스더회

성 가 대

전 레 : 수원교회 성 스테파노 성가대

지휘자 : 박태영 어거스틴 반주자 : 황영은 아가타

봉헌특송 : 세마대교회 하람 성가대

지휘자 : 김은혜 클라라 반주자 : 김수린

개회예식

입당성가 (일어선다) ----- 339장 (1,2,4,5) ----- 다함께

교회와 공동체

교회의 참 근원은

339

1 교 회 의 참 근 원 은 우 리 의 하 느 님  
 2 온 세 상 모 든 교 회 한 교 회 되 리 라  
 3 혈 뜰 어 갈 라 서 고 이 단 들 다 투 니

성 세 와 말 씀 으 로 새 름 게 하 시 고  
 온 천 하 신 나 의 주 분 내 아 주 폰 맘 한 디 믿 하 음 내  
 상 하 신 나 의 주 분 내 아 주 폰 맘 한 디 믿 하 음 내

배 우 자 삼 으 시 리 이 땅 에 오 시 어  
 거 록 한 한 분 사 랑 나 누 는 한 성 어  
 우 리 가 님 우 처 고 주 님 께 비 오 관 니

고 귀 한 피 를 흘 려 그 값 을 내 셧 다  
 념 치 는 은 혜 을 러 은 그 마 음 내 셧 다  
 분 열 의 밤 을 고 새 아 침 주 소 망 서

4 어려움 겹쳐 있고 소란한 중에도  
 마침내 화목하여 하나를 이루네  
 바르고 빛난 슬기 축복을 받으며  
 교회는 영광 속에 평안해지리라

5 성체와 보혈 속에 깃드신 성삼위  
 또 그의 몸을 이룬 이 땅의 성교회  
 먼저 간 성도에게 평안을 주셨듯  
 오시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가사: The Church's one foundation Samuel John Stone, 1866 [수] 성가개편위원회, 2013  
 곡조: AURELIA Samuel Sebastian Wesley, 1864 Jerusalem the Golden, 1864

## 정심(淨心)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 아멘

## 죄의 고백

+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죄를 고백합시다.

*잠시 묵상합니다.*

◎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거룩하신 하느님 (Trisagion)

○ 거룩하신 하느님,

● 거룩하신 하느님,

○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Em A

(계) 거 룩 하 신 하 느 님

Em A

(응) 거 룩 하 신 하 느 님

C Em

(계) 거 룩 하 시 고 전 능 하 신 주 님

Am Em

(응) 거 룩 하 시 고 전 능 하 신 주 님

Em A D Em

(계) 거 룩 하 시 고 영 원 하 신 주 님 자 비 를 베푸 소 서

Em A D E

(응) 거 룩 하 시 고 영 원 하 신 주 님 자 비 를 베푸 소 서

가사: Agios O Theos (Holy God, Holy and Mighty)  
 곡조: 거룩하신 하느님 (HOLY GOD - TRISAGION) 노선락

Music © Sunlac Noh

## 말씀의 전례

### 본기도 (일어선다)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친교와 봉사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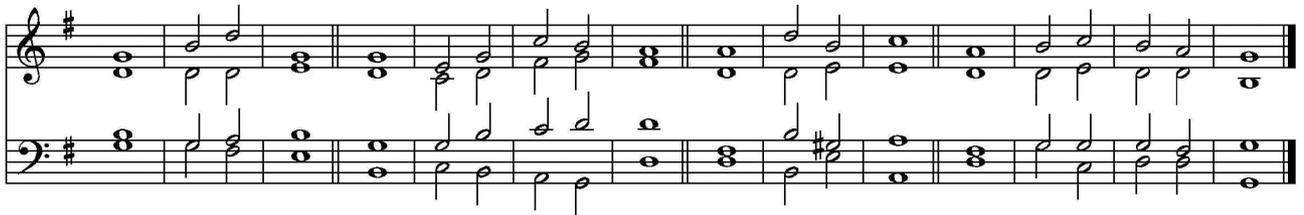
### 1 독서 (앉는다) ----- 임희봉 크리스핀 (수원나눔교회)

○ 1독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22-30)

22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올리고 23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 가는 종들에게 신실하시며 맺은 계약을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24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주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25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내가 내 앞에서 산 것처럼 네 자손들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 앞에서 살아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후손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26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27 그러나 하느님,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28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날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29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피 주십시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 주십시오. 30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1 만군의 주여, 계시는 곳 얼마나 | 좋으 | 신가!  
 ○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 뜰 안이 그리워 애타다가 | 지치 | 읍니 | 다.  
 2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 계신 | 하느 | 님께 ○ 기쁜 노래 | 부르 | 읍니 | 다.  
 3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 깃들 | 이고  
 ○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 | 얻었 | 습니 | 다.  
 4 당신 집에 사는 사람 | 복되 | 오니 ○ 길이길이 당신을 | 찬미 | 하옵 | 니다.  
 5 주님께 힘을 | 얻- | 어 ○ 순례길에 오른 사람 | 복- | 되어 | 라.  
 6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 터지 | 고  
 ○ 이른 비가 복을 | 내려 | 주리 | 라.  
 ◎ 영광이 | 성부 | 와 ○ 성 | 자와 | 성령 | 께  
 처음과 같이 | 지금 | 도 ○ 그리고 영 | 원히 | 아- | 멘

2 독 서 (앞는다) ----- 안재금 베드로 (수원다시서기센터 센터장)

- 2독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1베드 2:1-5, 9-10)
- 1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2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4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5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 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10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347

## 한 빛에서 많은 빛이

교회와 공동체



1 한 빛에서 많은 빛이 나 오네 우리의 한 빛 예수  
 2 큰 나무가 많은 가지들 뿐네 우리의 나무 예수  
 3 이 세상에 많은 선물 있지만 가장 큰 선물 사랑



그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네 사랑 예수  
 한 빛 예수  
 나무 예수  
 사랑 예수

가사: Muchos resplandores (Many are the light beams) Anders Frostenson  
 곡조: TJÄNSTERNA Olle Widestrand [편] Skinner Chávez-Melo

복음서 (일어선다) ----- 마태오의 복음서 21:12-16 ----- 정일용 바울로 사제

+ 알렐루야, 알렐루야.

“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 하셨으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입니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12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14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15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16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 주님의 복음입니다.

◎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설 교 (앞는다) ----- 이경호 베드로 주교

## 견진성사

### 견진후보자의 추천

*견진 후보자는 후견인과 함께 나온다.*

*견진후보자의 추천은 관할사제가 한다.*

+ 주교 : 견진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를 추천하십시오.

○ 추천사제 : 이 사람 ( )에게 견진례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 언약 갱신

*집전자는 견진후보자에게 묻는다.*

+ 이제 주님과 교회 앞에서 그대들이 세례받을 때에  
하느님께 드렸던 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 여러분은 하느님을 거역하고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일을 거절하겠습니까?

답) 예, 거절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겠습니까?

답) 예, 물리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는  
죄의 욕망을 버리겠습니까?

답) 예, 버리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까?

답)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답)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답)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그 가르침을 지키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감사성찬례를 통하여 말씀과 성사의 은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악을 꾸준히 물리치고, 죄에 빠졌을 때마다  
곧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위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여러분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답)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교는 신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묻는다.

+ 이 고백과 서약에 증인이 된 모든 교우들은 서로 힘을 다하여 이들이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을 위한 기도

+ 이제 견진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거나 성령임재 성가를 부른다.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314

1 임 하 소 서 성 령 이 여 우 리 마 음 밝 히 시 고  
2 주 님 기 림 부 으 시 니 멀 었 던 눈 밝 히 떠 서  
3 어 두 운 곳 밝 히 시 며 차 가 운 맘 데 우 시 고

성 령 칠 은 배 푸 시 어 거 록 하 게 하 음 소 서  
참 위 로 와 사 랑 이 신 주 님 뵈 게 하 음 소 서  
연 약 함 을 불 드 시 어 강 건 하 게 하 음 소 서

아 멘

4 풍성하신 주님 은총 우리 몸에 내리시어  
원수들을 막으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5 우리들을 가르치사 삼위일체 알게 하며  
영원토록 주 하느님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써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붙들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여기에 나온 주님의 종들에게  
세례 때 주신 은총을 굳세게 하시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어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 아멘

## 안수식

*후보자가 차례로 주교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교는 각자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 위에 안수한다.*

+ 주여, 이 종 ( )에게 성령을 내리소서.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 아멘

*안수가 다 끝나면 주교가 말한다.*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사랑의 손길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고,  
뜻과 행실로 교회를 섬기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아멘

## 성찬의 전례

### 평화의 인사 (선다)

+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나 주님께서는 또한 이 성전에도 계시니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특송 ----- 내 혼아 주 찬양 ----- 세마대교회 하람 성가대

+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주님의 성전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곳에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상의 은혜를 베푸소서.

◎ 아멘.

## 성찬기도 Eucharistic Prayer

### 1 양 식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의 산 돌로 세워주시어,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미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 거룩하시다 (Sanctus)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 86

## 거룩하시다 (D)

미사곡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가사: Sanctus, sanctus, sanctus (Holy, holy, holy Lord)  
 곡조: 거룩하시다 (SANCTUS) 노선락

†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난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 ◎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 ◎ 아멘, 아멘, 아멘



# 주의 기도

+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계)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 - 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 토록 -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 멘

## 성체 나눔 (얏는다)

+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 하느님의 어린양 (Agnus Dei)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미사곡

## 하느님의 어린양 (D)

87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 영성체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 그리스도의 성체    ◎ 아멘

+ 그리스도의 보혈    ◎ 아멘

### 영성체 후 기도 (일어선다)

+ 기도합시다.

하늘의 성부여, 교회는 하늘의 평화를 나타내는 징표이며,  
새롭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표상이 되나이다.

비오니, 지상의 순례길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빵으로 먹이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 아멘.

### 광고 (수원교회 축성 120주년의 나눔과 교회 소식) (앉는다)

#### 파송 예식

#### 축복기도 (일어선다)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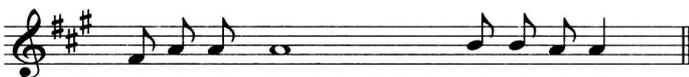
+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 파 송 (일어선다)

+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계)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 합 시 다  
    나 가 서 주님의 평화를 이 룩 시 다  
    나 가 서 주님의 사랑을 나 눕 시 다



(응) 그리스도의 이 름 으 로    아    멘

# 342

## 여기에 모인 우리

교회와 공동체

G C D7 G

1 여 기 에          모 인 우 리          주 의 은          총 받 은 자 여 라  
 2 주 님 이          뜻 하 신 일          해 아 리          기 어 렵 더 라 도  
 3 여 기 에          모 인 우 리          사 랑 받          는 주 의 자 녀 라

(1 여 기 에          모 인 우 리)

C G D7 G

주 께 서          이 자 리 에          함 께 게          심 을 아 노 라  
 언 제 나          주 뜻 안 에          내 가 있          음 을 아 노 라  
 주 께 서          뜻 하 신 바          우 리 통          해 펼 치 신 다

(1 주 께 서          이 자 리 에)

D G C A D

언 제 나          주 님 만 을          찬 양 하          며 따 라 가 리 니  
 사 랑 과          말 씀 들 이          나 를 더          욱 새 롭 게 하 니  
 고 통 과          슬 픔 중 에          더 욱 주          님 의 지 하 오 니

G C G D7 G

시 험 을          당 할 때 도          함 께 게          심 을 믿 노 라  
 때 로 는          넘 어 저 도          최 후 승          리 를 믿 노 라  
 어 려 움          이 겨 내 고          주 님 더          욱 찬 양 하 라

(1 시 험 을          당 할 때 도)

후렴

이 믿음 더 옥군 세 라 주 가 지 켜 주 신 다

어 든 밤 에 도 주 의 밝 은 빛 인 도 하 여 주 신 다

마지막 절

하 여 주 신 다

## 견진성사를 받으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리온(클라라) 주재성(프란시스) 문현호(에프렘) 이은진(마리안느) 김금석(다니엘) 김주연(베로니카)  
 이규필(요셉) 박주연(막달라 마리아) 김영춘(시몬) 이인순(안젤라) 최인영(아녜스) 강덕순(야곱) 최한솔(본회퍼)  
 권준엽(어거스틴) 최가온(마리아) 백진옥(소화테레사) 홍진기(프란시스) 김소린(카타리나)  
 강릉교회 정문균(바울로) 정세환(세례자 요한) 권순영(엘리사벳)

### << 교회소식 >>

#### ■ 축성 120주년 축하합니다.

오늘 집례와 설교를 해 주신 이경호 주교님,  
 함께 해 주신 오산세마대교회, 수원나눔교회,  
 다시서기센터, 강릉교회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 ■ 교무구 어머니연합회 월례모임

일시 : 9월 12일(목) 오전 11시 / 팽성교회  
 (교회차량 10시 출발합니다.)

#### ■ 세실대학 오리엔테이션

일시 : 9월 15일(주일) 오후 1시  
 장소 : 진명학교 강익실

#### ■ 추석 별세미사

일시 : 9월 17일(화) 오전 7시 10시 / 수원교회  
 < 양감묘지 별세미사 >  
 일시 : 9월 17일(화) 오전 10시 / 양감묘지

## 수원교회(성 스테반) 역사

- 1904년 '존 코프 주교'에 의해 성 스테반 성인의 이름으로 축성  
현 공군비행장 자리에 1904년 송세준(즈가리아) 전도사의 전도 시작
- 1905년 부재열 신부 파송, 매교동 가옥을 매입해 성당
- 1906년 현재의 부지인 교동(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두리로 호칭됨)에 자리 잡음
- 1908년 성당신축 및 남녀 80명의 진명학교 개교
- 1913년 서울에서 수원으로 성피득보육원 이전 후 1973년까지 60여년 동안 1,000여 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배출, 아이들을 돌보았던 노라 수녀와 바바라 수녀의 묘비가 교회 입구에 있음
- 1928년 진명학교를 진명유치원으로 변경 후 1943년 폐쇄
- 1982년 현재의 교회건물 건축(2009년 리모델링)
- 1985년 진명유치원 재개원
- 1986년 경애의 집 건축
- 1994년 교육관을 건축(선교90주년 기념)
- 1995년 동수원교회 개척 지원
- 1999년 수원나눔의 집 개원 지원 및 후원 계속
- 2004년 선교 100주년 사업 및 피정의 집 건축
- 2010년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섬김과 후원 계속
- 2019년 동탄교회 개척 지원
- 2024년 경애의 집 2층을 피정공간으로 조성
- 2024년 엘리베이터 재설치 예정

수원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 수원교회 선교지도 및 교회 모습



수원교회 선교지도



오산 세마대 제자교회 전경



진천교회



용인교회 전경



동탄교회 전경



청주 수동교회



청주신대리교회



백석포교회



진위교회

## 선교 120주년 기도문

120년 전 지역에 수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오신  
하느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개척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수원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은혜와  
이 교회를 지키고 일구어 온 선배들의 귀한 믿음을 본받아  
축성 120주년을 맞는 수원교회가 이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웃들의 아픔을 경청하며 주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수원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교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합심하여 하느님을 섬기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한 지구 환경과 희망찬 미래세대를 위해  
아래의 “성공회 선교정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둘째, 새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주고, 양육합니다.

셋째,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넷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섯째,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되돌아 봄과 현재(나아감)”



1908년 봄 수원교회 전경



야유회 장면



1926년 성 피득 보육원 모습



1910년대 수녀원 건물에 모인 수녀님들



양호실과 원장실 모습



1936 성피득보육원 성장·출가 후 방문



수원교회 전경



수원교회 내부 모습



1909년 경 수원소녀학교 운동회날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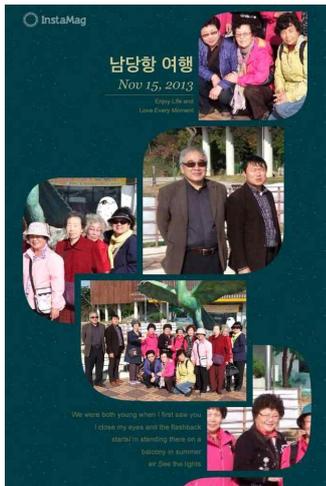
진명학교 여자 학사



1970~80년대 학생회, 청년회 모습



2010년대 사순절 모습



2010년대 활동 모습



2024년 부활주일



2024년 피정의 집 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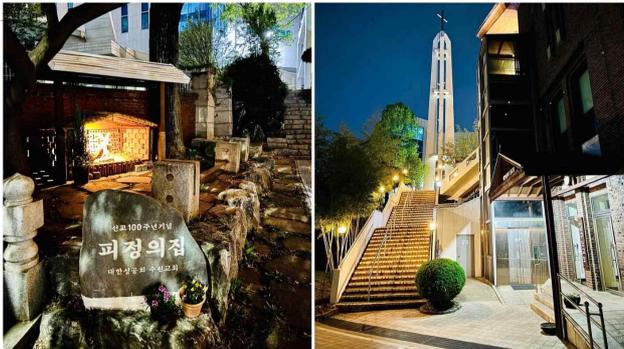


현재의 수원교회 전경

## 축성 120주년을 맞이하며, 준비해 온 것들



수원교회 선교 120주년 기념 피정의 집 축복식  
2024년 5월 19일(성령강림 대축일)



### 수원교회 피정의 집 축복과 사용 안내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수원교회는 영성사목의 확대와 선교적 실천을 위해 피정의 집을 마련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린 공간 사용과 피정인도를 지원합니다.  
한 세기를 넘은 기도의 터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이 선물하시는 쉼과 위안, 지혜와 성장이 필요한 교우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敬愛 피정의 집” 프로그램	
개인 혹은 친구, 부부, 가족과의 자율 피정	혼자 혹은 두 세 명의 동료들이 조용히 기도하며 피정하길 원할 때, 성무일과와 상황에 맞는 피정 안내 및 영적동반을 지원 (사전 신청)
신앙안내 피정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민과 위기를 맞은 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피정안내와 프로그램 (사전 신청)
기도 소개 피정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운영 - 렉시오 디비나, 향심기도, 복음관상, 예수기도, 몸기도 등, 5-10명 이내 그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 진행
월례 주제 피정	4-6월, 9-12월 마지막 토요일(오전 10시 15분-오후 5시) - 한국살렘과 성공회 영성센터와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적 주제로 진행되는 하루 피정
자체 소그룹 피정	5-10명 이내 소그룹이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피정의 집을 사용

#### 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수원교회

문의: 수원교회 영성관 운영센터 031)248-5700 김대욱 가브리엘 신부

## 수원교회 피정의 집 축복과 사용 안내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수원교회는 영성 사목의 확대와 선교적 실천을 위해 피정의 집을 마련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린 공간 사용과 피정 인도를 지원합니다.

한 세기를 넘은 기도의 터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이 선물하시는 쉼과 위안, 지혜와 성장이 필요한 교우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경애 敬愛 피정의 집” 프로그램

개인 혹은 친구, 부부, 가족과의 자율 피정 / (사전 신청)

혼자 혹은 두 세 명의 동료들이 조용히 기도하며 피정하길 원할 때, 성무일과와 상황에 맞는 피정 안내 및 영적동반을 지원

신앙 안내 피정 / (사전 신청)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민과 위기를 맞은 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피정안내와 프로그램

기도 소개 피정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운영

(렉시오 디비나, 향심기도, 복음관상, 예수기도, 몸기도 등)

5-10명 이내 그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 진행

월례 주제 피정 / 4-6월, 9-12월 마지막 토요일(오전 10시 15분-오후 5시)

한국살렘과 성공회 영성센터와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적 주제로 진행되는 하루 피정

자체 소그룹 피정

5-10명 이내 소그룹이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피정의 집을 사용

수원교회의 믿음의 선조를 기억하며 세 가정을 초청하여 감사성찬례를 드렸습니다.



**장성보(요셉) 초대 신자회장님, 장을라(엘라) 교우님**

장성보(요셉) 교우님께서 1904년 수원교회 설립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지역사회에 초대 신자회장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초기 선교 과정에 큰 역할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장을라(엘라)교우님께서 아버지 장성보(요셉) 회장님의 신앙을 이어 수원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남다른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을라 어머니의 유지를 잇기 위해 유족들의 봉헌으로 1983년 수원교회 ‘을라 장학회’ 를 만들어 교회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120주년을 맞는 수원교회는 이 같은 두 분의 신앙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일(일)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드림



**한 노다 전도부인님**

故 한 노다 교우님께서 전도부인으로 수원지역 사회의 복음전파와 수원교회 교우들을 위한 심방사역에 헌신하며 수원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 후 교회에서 설립한 성피득 보육원에서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일에도 헌신하며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원교회는 선교 120주년을 맞아 복음전파와 이웃사랑의 귀한 유산을 남겨준 故 한 노다 전도부인의 헌신적인 사역과 신앙의 모범을 기리는 동시에 후손들과 함께 한 노다 전도부인의 신앙적 유산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수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6일(토)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드림



**故 서상원(경애), 이흥준(콜롬바)**

교회 축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수원교회는 지난 시간 신앙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족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신 故 서상원(경애) 교우님과 선교를 위한 열정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故 이흥준(콜롬바) 교우님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수원교회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4년 8월 25일(일)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드림

교회 입구에 세워진 세 개의 비석에 안내문을 설치하였습니다.



## 주교 단아덕(端雅德)

아서 베레스포드 터너, The Rt. Rev. Arthur Beresford Turner, 1862-1910

주교 단아덕은 영국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1896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905년 조선 성공회 2대 주교로 서품받고 1910년 과로로 인한 패혈증으로 별세하기 전까지 14년동안 조선에서 성공회 선교에 헌신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여성교육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최초의 사립 교육기관으로 강화도 온수리에 여자신명학교를 수원·천안·진천·병천에 진명학교를 설립하였다. YMCA 연맹의 전신인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핵심 발기인으로 YMCA연맹 3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선에 축구와 근대적인 스포츠 보급에 소중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04년 설립되어 전도사가 사역하던 수원교회에 1905년에 부재열(조지 브라이들, George Alfred Bridle, 1870-1945) 사제를 파송하였고 1909년 성당을 축성하기도 하였다. 부재열 사제의 사목으로 수원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경기남부와 충청북부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단아덕 주교의 유해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서울 마포구 소재)에 안장되어 있다.

수원교회는 성직의 삶을 수행하신 단아덕 주교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워 기리고 있다.



## 노라(老羅), 이사벨(理事), 바바라(巴巴羅)

노라(Sr. Nora, 1841-1919), 이사벨(Sr. Isabel, 1869-1927), 바바라(Sr. Barbara, 1862-1959)

노라, 이사벨, 바바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에서 선교활동과 구제활동에 헌신한 영국성공회에서 파송된 수녀이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입국하여 1890년 초 인천과 서울 정동에 설립한 성베드로 병원과 낙동 성마태 병원(현 서울중앙 우체국과 대연각 타워 자리)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담당하였다.

이때 병원근처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과 영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다. 이 사역을 계기로 1893년 서울 장림성당(현 주교좌 성당)부근에 성피득(베드로)보육원을 설립하게 된다.

1913년 성피득 보육원이 수원교회 부근으로 이전하면서 3명의 수녀도 수원교회로 옮겨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속하게 된다.

노라 수녀는 1919년 암으로 별세하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서울 마포구 소재)에 안장되어 있고 이사벨수녀는 초대 성피득 보육원장을 역임한 후 1927년에 귀국하기까지 바바라 수녀는 1939년 영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보육 사역을 지속하였다.

수원교회는 작은 십자가비를 세워 세 수녀의 헌신을 기념하고 있다.

비석에는 음차 된 한자로 "노라(老羅) 수녀", "이사(理事) 수녀", "바바라(巴巴羅) 수녀"라고 쓰여 있다.



## 조 마리아(정자)

조 정자 (마리아, 1901-1975)

조 정자(마리아)는 청주교회 전도사로 지내다가 1948년 성피득(베드로) 보육원 원장으로 임명되면서, 1973년에 보육원의 문을 닫을 때까지 원장으로 역임하였다.

조 마리아 원장은 보육원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부모의 사랑 못지않게"라는 교육이념을 헌신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조 마리아 원장은 보육원이 단순한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넘어 가정의 역할까지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육원을 운영 하였다. 보육원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성인이 되어 결혼, 독립적인 생활까지 상담하고 돕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원교회는 추모비를 세워 온전한 복지에 대한 조 마리아 원장의 신념과 그녀의 헌신된 삶과 신앙을 기리고 있다.



## 회화나무 이야기

수원교회에 들어서면 높은 종탑과 함께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회화나무가 먼저 반겼습니다. 노거수의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방주 모습의 교회당과 잘 어울리는 교회 나무로 기억합니다.

한 세기를 넘은 120년 수원교회 선교 비전과 교우의 기도와 신앙 자람을 함께한 나무이자 기도의 터전을 지키고 하느님이 선물하는 쉼과 위안의 그늘을 제공한 성공회 선교 역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고요한(Charles john corfe)주교가 서울(1890), 인천(1891), 강화(1900)에 이어 1904년에 네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수원교회입니다. 서울 대성당과 강화읍교회, 수원교회를 건축하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 심은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대표적 학자수(學者樹) 상징나무로 궁궐, 서원에 주로 식수해 큰 인물이 나기를 서원하고 행복을 담아 준다는 나무로 단단함과 아름다운 무늬로 궁궐의 고서함 제작에 주로 쓰인 귀한 나무입니다.

1908년 수원 근대교육 첫 출발지로 진명학교를 개교했고 성피득보육원에서 60년간 1,000여명을 교육 보육하면서 그들과 웃음을 함께한 추억도 회화나무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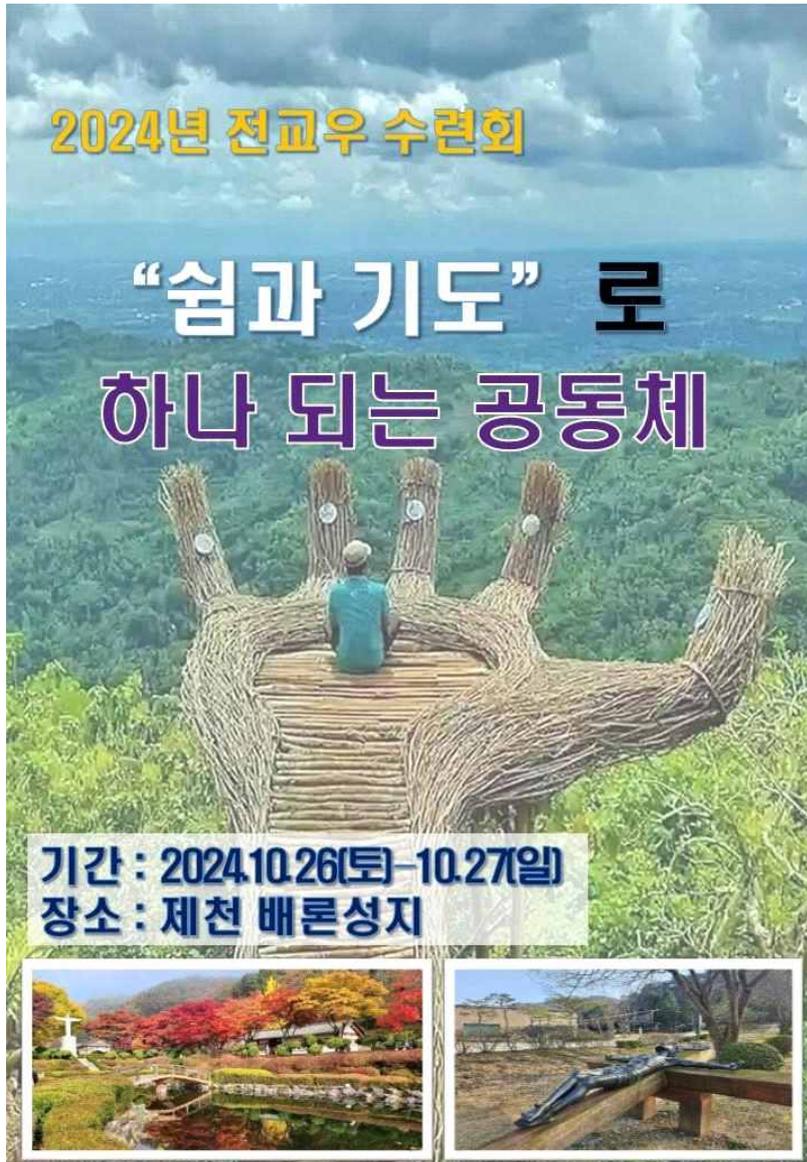
태풍으로 고사한 회화나무를 5년에 걸쳐 건조와 가공을 거쳐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담고자 기념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전 서예 작가인 윤경숙 교우의 은혜로운 글씨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하면서 눈과 가슴에 남은 회화나무를 기억함도 수원교회 축성 12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일이기에 기획한 것입니다.

수원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위한 헌신적 봉사과 사랑 선교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고 보기에 수원교회와 교우들과 함께한 회화나무를 작은 기념품으로 제작해 수원교회 축성 120주년 기념으로 드리니 추억으로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성 120주년은 10.26(토)~27(주일)

쉽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전교우 수련회**로 이어갑니다.



### 이런 교회

질문하고, 모색하고, 탐구하고, 개방적이며, 반성하는 교회는  
하느님이 분명히 우리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하도록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Elizabeth O'Connor

## 축성 120주년 기념행사 일정표

○ 기간 : 9.7(토) ~ 9.8(주일)

○ 장소 : 수원교회 전역

구분	부터	까지	내 용	비고
1일차 (9.7)	14:00	15:15	<b>1부 수원교회 교인 간담회</b> 미래 교회의 역할을 위한 설문 분석 결과 및 방향	브라이들홀 (2층)
	15:15	15:30	휴식 및 좌석 정리	
	15:30	17:00	<b>2부 지역사회인사 초청간담회</b>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브라이들홀 (2층)
2일차 (9.8)	10:30	12:10	<b>연합 감사성찬례</b>	대성전(3층)
	12:10	13:30	연합 애찬 (도시락)	교회 전역
	13:30	16:30	<b>친교 및 지역공동체 선교</b> - 13:30-15:00 야외음악회 - 9:00-16:30 전시회 (다시서기, 교회 교우 등) - 13:00-16:30 바자회 (교회, 지역바자회 팀)	교회 마당  교회계단 및 잔디밭

### □ 야외 음악회 순서

구분	출연자	곡 명
1부	세마대 찬양팀	인트로 + 2곡
	인사말/시작기도	김경수 신자회장 / 김홍일 사제
	신원식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 프란시스의 기도
	장명구	로라
	기타 합주 (손진욱 외)	부르신 곳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휴 식		
2부	마을음악팀 (너나드리팀)	1. 노래여 날아가라 2. 벽
	다시 서기 합창	1. 뭉게구름 2.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서기 난타	딱! 풀(이찬원) 런웨이 베이비(브루노마스)
	찬양 및 마감 기도	찬양 1곡 및 기도(김대묵 사제)
3부	뒷정리	나자로회, 청년회 등

